

‘마약 투약’ 박유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거짓말 왜?

악어의 눈물, 시간벌기용이었나

소속사 관계자 앞에서 회견문 작성 경찰엔 “자진출두” 수사협조 모양새 음성 낙관 “의혹 벗을 것” 큰소리도 일각선 국과수 검사 시간벌기 시선



박유천

“결단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3)은 왜 그토록 결백함을 주장했을까.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에도 “사실이 아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던 그의 주장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일까.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 황하나 씨(31)가 “연예인 A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연예인으로 자신이 지목되자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직 의혹만 제기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함을 주장했던 터라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 이를 전인 8일 박유천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에 신청한 상태였다. 검찰은 박유천이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힌 만큼 기자회견 직후 체포영장을 반려하고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박유천의 치밀한 계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공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고 자진 출두하는 형식을 취해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일정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시선에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올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박유천의 한 측근에 따르면 기자회견에 앞서 그는 “정말 마약을 하지 않았느냐”는 가족과 측근들의 물음에 “내 말을 믿지 못하냐”며 “극단의 선택을 하면 그때

서야 믿겠느냐”고 호소했다. 또 그는 그 직전 소속사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담은 회견문을 직접 쓰면서 “억울하다”며 몇 차례 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만 해도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되는 건가 두려움에 휩싸였다”며 “아니라고 발버둥쳐도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공포가 찾아왔다. 하지만 저는 결단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박유천의 언급이 어느 정도 통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20~30분 뒤 의문의 물건을 수거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 증거에도 그는 “황하나의 부탁으로 한 일”이고 “마약인 줄 절대 몰랐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23일에도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의혹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낙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그가 눈물로 호소한 결백함은 국과수의 양성반응 결과로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경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현장.jpg

트로트가수 조정민, 화보가 따로 없네!

가수 조정민이 섹시미를 한껏 뽐냈다. 고풍스러운 소파에 기대앉은 그가 뇌쇄적 눈빛과 포즈로 요염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원피스 사이로 드러나는 각선미에도 시선이 쏠린다. 조정민의 파격 변신은 24일 발표한 새 앨범 ‘드라마’의 타이틀곡 ‘레디 큐’를 위해서다. 그는 라틴 팝 장르의 ‘레디 큐’를 통해 라틴 감성에 완전히 빠져든 모습이다. 이번 앨범에서 음악적 실력을 과시한 그는 ‘레디 큐’의 공동 작사가로 참여했다. 사진제공 | 투레엔터테인먼트

배신감에 사로잡힌 소속사 “박유천 아웃”

“신뢰 회복할 수 없다” 계약 해지 끝까지 지지했던 팬들도 등 돌리

마약 투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박유천(33)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팬들과 소속사 관계자들은 24일 참담함을 감지 못했다. 심한 배신감에 휩싸인 이들은 어렵게 붙잡고 있던 박유천의 손을 결국 놓을 수밖에 없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박유천의 연에게 은퇴와 그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소속사는 “그의 진술을 믿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결과를 기다렸지만 양성반응으로 나왔다”며 “박유천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이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에게를 은퇴할 것이며,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그를 퇴출한 셈이다. 10일 기자회견에서 박유천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으로서는 활동 중단과 은퇴를 넘어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들은 그동안 박유천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의 의심에도 관계자들은 박유천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룹 동방싱기에서 탈퇴한 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아픔을 함께 겪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동고동락

해온 데 따른 동료애가 바탕이 됐다. 하지만 박유천은 결국 이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저지른 셈이 되고 말았다.

팬들 역시 그에 대한 애정을 놓았다. 23일 커뮤니티사이트 디시인사이드 박유천 갤러리는 “그를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과거 그가 여러 힘든 시간을 겪을 때에도 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왔다”면서 “그의 간절한 호소를 믿고 지지 성명을 냈지만 결국 팬들의 마음에 또 다시 상처를 안겨주었다. 더 이상 그를 지지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팬들은 그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스스로 의혹 해명에 나섰고 경찰 조사에서도 줄곧 잘못이 없음을 주장해온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끝내 그와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해시태그 컷



김고은 ‘벌써 여름’

연기자 김고은이 이른 여름을 즐기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김고은은 한 수영장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등을 흰히 내보인 수영복을 입은 채 선댄을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한여름이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모자를 꼭 눌러썼지만, 시크함이 엿보이는 표정으로 분위기를 더한다. 팬들은 “여름 미리보기” “은근한 섹시미가 인상적이다” 등 반응을 드러냈다.

#스포츠투아 #김고은 #미리여름 #시크 매력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빠르면 이번주 영장 신청 검토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 진술 확보 경찰, 계좌내역 등 토대 막바지 수사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기가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23일과 24일 이를 연속 승리를 불러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에 이어 24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승리는 2015년 12월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과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통해 해외 투자자에게 성 접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또 2015년 일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왕에서 연 생일파티에서 유혹업소 종업원 등

여성들을 동원해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일부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인 관계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들의 여행 경비 등을 승리가 제공한 정황 등을 포착해 그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승리는 이와 함께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이를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그에 대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솔미 기자

또 불거진 ‘일본 드라마’ 표절

작년 SBS ‘그녀로…’ 일드 표절 의혹 최근 MBC ‘슬플 때…’로 다시 논란



MBC ‘슬플 때 사랑한다’

지금껏 여러 드라마가 표절 의혹과 시비에 휩싸였지만 실제 ‘표절’로 판명된 경우는 거의 없다. 방송 관계자들은 “소송마저 쉽지 않아 앞으로도 관련 시비는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7일 종영하는 MBC 주말극 ‘슬플 때 사랑한다’와 지난해 방송된 SBS 주말드라마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그녀말) 사이에 벌어진 논란은 이 같은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슬플 때 사랑한다’는 자신에게 집착하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얼굴을 성형한 여자의 기구한 삶을 담은 이야기다. 이는 ‘그녀말’과 비슷하다는 시선을 받았다. 시청자들은 “두 드라마가 캐릭터 설정부터 여주인공이 성형외과 전문의와 사랑에 빠지는 전개까지 닮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슬플 때 사랑한다’의 제작사 DK E&M은 “1999년 일본드라마 ‘아름다운 사랑’의 판권을 2017년 11월 구매해 만든 리메이크작”이라며 작년 10월 “‘그녀말’이 ‘아름다운 사랑’의 중요 부분을 표절 및 수정해 방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에 표절 여부를 판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BS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